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신심' '원력' 이야기 펴내

신심은 불심 원력은 보살의 마음

혜인 스님.

100만배 정진·불사 추진에 담긴 일화
수행 현장서 길어올린 '금언'들 가득

사자후, 100만 배 정진으로 얻은 보배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獅子吼)라고 한다.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에 부처님은 오로지 육성으로만 법을 설했지만, 그 소리가 우렁차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자의 포효(咆哮)처럼.

우리시대 큰스님 가운데도 '사자후'로 이름난 분들이 많다. 지금은 마이크 시설이 좋아 얼마든지 큰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자후는 단지 목소리의 크기로 이름 지어지지 않는다. 설하는 법문 한마디 한마디에 살을 뚫고 뼈를 두드리는 기상과 정신의 근원을 후벼 파는 진리의 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자후'로 이름난 큰스님들 가운데 '진짜 사자후'를 토해내는 스님이 그렇게 많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법상에 오른 순간부터 내려오는 순간까지 한결같은 카리스마를 유지하며 쩌렁쩌렁한 법문으로 청문대중들의 정신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끼얹는 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慧印) 스님이다. 하나의 주제를 세우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고래의 일화와 전설 민담까지 적절하게 끌어들여 우렁차게 풀어내는 혜인 스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돌아서서 묻는다. "혜인 스님 법문 테이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어요?"라고. 정확성을 장담할 순 없지만, 지난 20여 년 간 혜인 스님의 법문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는 10만 개 이상이 보급됐다고 한다.

'오척단구'인 스님의 어디에서 그렇게 힘차고 막힘없는 설법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어릴적에 출가한 스님은 조계사 법당에서 법문하는 어느 스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법문을 잘 하는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 할 만큼 법문 잘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다. 그런 스님이 30세 무렵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 배 정진을 성만한 뒤부터 달라졌다. 막힐 것도 걸릴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헌헌장부의 모습으로 몸과 정신이 바뀌었던 것이다. 기도의 위대한 힘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는 변화였다. 100만 배가 스님 자신에게 '사자후'의 기상과 힘을 선물한 것이다.

그 선물은 혜인 스님에 의해 다시 세상으로 회향됐다. 바로 약천사라는 대형 사찰의 건립이 다. 혜인 스님이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화장실도 없던 약천사를 지금의 대도량으로 바꾼 힘 역시 100만 배 정진의 원력과 다른 것이 아니다.

'신심'과 '원력' 불자의 A에서 Z까지

혜인 스님의 이력서는 딱 두 단어면 족하다. '신심'과 원력'이다. 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심의 힘이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건 이루고야 마는 것은 원력의 힘이다. 100만 배 정진이나 약천사 불사 그리고 지금 단양 도락산에서 진행 중인 광덕사 불사까지 혜인 스님의 신심과 원력이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법회 현장과 불사 현장만을 지키며 올곧게 살아 온 혜인 스님이 "나이 70이나 되면 하지 뭐" 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 그간 법회 현장에서 쩌렁쩌렁한 사자후로 토해 냈던 금언들을 모으고 다듬어 두 권의 책을 엮은 것이다. 책 제목도 <신심>과 <원력>(클리어마인드 1만원)이다. 혜인 스님은 책 머리에서 "신심은 불심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라고 밝힌다.

책에는 혜인 스님이 그간 걸어 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가사의함이 페이지마다 녹아 있다. 또 대형 불사를 추진하며 한 순간도 놓지 않았던 큰 원력의 이야기가 절절하다. 지식의 범주에서 나오는 법문이 아니라 실천과 궁행으로 육화된 언어들이 이루어내는 장광설이기에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장쾌한 폭포수 같은 혜인 스님의 법문들은 '신심'과 '원력'이라는 물줄기를 일관되게 끌어가고 있다.

<심심>에서는 출가 이후 수행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믿음의 공덕이 어떤 것인가를 다양한 일화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준다. 우리의 일상에서 지켜야 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금쪽같은 가르침이다. <원력>에는 기도의 힘과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참회의 중요성, 보살계의 수지와 실천의 중요성 등이 친절하게 설해지고 있다. 책의 중간 중간 시원스럽게 자리한 사진들은 제주 약천사와 단양 도락산 광덕사의 모습으로 혜인 스님의 상좌인 성원 스님(약천사 부주지)이 찍은 것들이다.

수덕사 수좌 설정 스님은 혜인 스님의 <신심>과 <원력>을 추천하며 "향상일구는 언설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로되, 등불이 아니면 암실의 실물은 볼 수 없고 언어의 방편이 아니면 수행장정의 진면목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는가?"라며 "혜인 선사의 <신심>과 <원력> 책은 현재의 구도자나 미래의 수행자들에게 지남의 등불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을 지낸 무비 스님은 "어쩌면 이렇게도 혜인 스님의 수행과 삶이 잘 나타나 있는지 축착합착(築着合着)"이라고 찬탄을 감추지 않았다. 고은 시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장엄한지고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훤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라고 이 책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했다.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릴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법 | 선우도량 | 1996

호원대학교 오종근 교수

'행복' 중심에 둔 삶 지향되야

여러 해 전 읽었을 때 마음을 넓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었던 책 <화엄의 길, 생명의 길>. 이번 원고를 쓰기위해 다시 읽었더니 또 다른 느낌이 있었다. 좀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코앞의 일에 마음졸이며 일희일비(一喜一悲) 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니 말이다.

도법 스님이 쓴 이 책은 4부로 나뉘어 있는데, 책 제목과 같은 2부 '화엄의 길, 생명의 길'이 가장 인상 깊다.

좀 더 잘 살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 지는 것은 왜일까? 원인은 신의 힘이나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인생관 · 국가관 · 세계관 · 우주관 · 생명관 · 평화관 때문이다. 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가치관과 개인간, 국가간 이기주의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야욕을 충족시키려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여기기도 하고, 인간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간 이외의 생명을 무시하기도 한다.

인간중심 사고 행복한 삶 더 힘들게해
삶의 완성은 믿음 · 이해 · 실천 · 체험

책에서 도법 스님은 "불교에서는 삶의 완성을 위한 실천 내용을 생명의 존귀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확고한 믿음(信), 생명본연의 질서인 자기완성과 세계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의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解), 생명 본연의 질서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실천(行), 생명의 실상인 완성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체험(證)으로 설명한다"고 하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려 하거나 더 좋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일러준다.

하나를 선택하느라 다른 하나를 버리거나, 생명을 살리느라 진실을 죽게 해서는 안 되며, 경제논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을 간과해서도 안 되며, 군중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비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와 일체, 찰나와 영원이 인드라망처럼 서로를 머금고 서로를 비추는 진리의 세계 즉 화엄의 바다로 나아가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연기론적인 불교세계관 즉 상대가 없이 나가 있을 수 없고 상대가 멸하면 나 또한 멸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정신문명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질문명과 어울릴 만큼 정신적 발달이 없으면 현재 물질문명은 은혜가 아니라 재난일 뿐이다"라는 토인비의 말처럼 국가도 소득이 높은 부자나라보다는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에 우선을 두어야 하고, 개인들도 부지깽이처럼 나를 태우지 않고는 아궁이 안의 다른 나무들을 잘 타게 할 수 없다는 알아, 일심동체의 세계관으로 함께 성불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돕는 삶이 불자다운 삶이다. 이런 나의 생각들을 <화엄의 길, 생명의 길>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은 무척 즐거웠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마루판

◆ 조립식 원두막 방갈로 7000×3500×3300(mm) 가격: 750만원

◆물로 청소하는 평상 1800×1030×350(mm) 가격 : 190,000

연결, 이동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갈라지거나 터짐이 전혀 없고 주기적 도색이나 관리가 필요 없어 반 영구적이며 특히 촉감이 부드럽고 비 온후 바로 앉을 수 있는 제품

지구산업
www.bangaro.com/ 조립식평상
TEL:(063)323-3011~2
FAX:(063)323-3010
계좌번호 (농협) 519 - 02 - 203482 예금주 : 지구산업 곽 영 호
전품목부가세별도 전국대리점모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